

울지 않는 장닭

옛날 어느 마을에 장닭을 기르는 총각이 있었습니다.

총각은 장날이 돌아오자 장닭을 팔려고 장터로 향했습니다.

장닭은 새벽녘이 되면 ‘꼬끼오’하고 큰 소리로 울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이제 날이 밝아오네요’하고 알려줍니다. 시계가 없던 옛날에는 장닭이야말로 살아 있는 시계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따라서 장터에서 장닭을 사는 사람들은 늘 이렇게 묻곤 했습니다.

“이 장닭 잘 우나요? 아무 때나 울지 않고 새벽녘에 꼭 울고, 목청은 우렁찬가요?”

그러면 장닭 주인들은 침을 튀기며 장닭 자랑을 늘어놓았습니다.

“우리 장닭은 새벽녘이 되면 어김없이 울어요. 얼마나 시끄럽게 우는지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운다니까요.”

이렇듯 잘 우는지 꼭 물어본 다음 장닭을 사고팔았는데, 총각이 팔려는 장닭은 공공로롭게도 병어리 닭이었습니다. 새벽녘은 물론이고, 하루 온종일 전혀 울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젯, 울지 않는 장닭을 뭐 하러 길러? 좁쌀이나 축내고 아무 쓸모가 없어.’

그래서 총각은 장닭을 팔려고 장터로 갔던 것입니다.

닷새에 한 번씩 열리는 장날입니다. 장터는 물건을 사고파는 사람들로 북적거렸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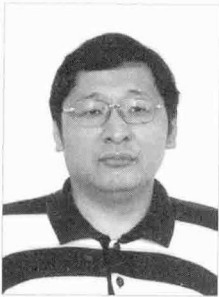
총각은 장닭을 품에 안은 채 장터를 돌아다니며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장닭 사세요, 장닭 사세요!”

장터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총각의 장닭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각은 금방 기운이 빠졌습니다.

“장닭이 왜 이렇게 안 팔리지? 아무래도 오늘 허탕 치는 거 아냐?”

총각이 장터를 한바퀴 돌고 이렇게 중얼거렸을 때였습니다. 맞은편에서 한 젊은이가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걸어오고 있었습니다.



작가 | 신현배

4201708@hanmail.net

약력

시인, 아동문학가

조선일보, 경향신문 신춘문에 당선

창주문학상, 청구문학상, 광명문학

대상 수상

시집 <거미줄>, <매미가 벗어 놓은

여름> 외 지은 책 다수

‘아니, 저게 누구야? 이웃 마을에 사는 친구 녀석이잖아.’

총각은 친구를 발견하고 반갑게 외쳤습니다.

“어이! 그 동안 잘 있었나?”

“오, 그래. 나야 늘 편안히 잘 지냈지. 오랜만에 자네를 보니 반갑군. 자네도 별일 없지?”

“물론이야. 자네는 장에 무슨 볼일로 왔는가?”

“응, 장닭을 사려고…”

“그게 정말인가? 마침 잘 됐네. 내가 오늘 장닭을 팔려고 장터에 왔거든. 이 장닭을 자네가 사게나.”

총각은 친구에게 장닭을 들어 보였습니다.

“어떤가? 살이 통통하고 아주 잘생겼지? 이렇게 멋진 장닭은 자네도 처음 봤을걸.”

총각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장닭을 칭찬했습니다.

그러자 친구는 장닭을 이리저리 살펴보니,

“때맞춰 잘 우는가?”

하고 물었습니다.

“그야 당연하지. 새벽녘만 되면 마을이 떠나가라 울어댄다네. 얼마나 크고 우렁찬지 할아버지부터 갓난아기까지 모든 사람이 깨어난다네.”

“호, 그렇게 잘 우는가? 그럼 자네만 믿고 이 장닭을 내가 사겠네.”

“잘 생각했어. 친구한테 내 장닭을 비싸게 팔 수야 없지. 자네가 알아서 값을 쳐주게.”

“아닐세. 잘 우는 장닭이라는데 헐값에 살



수야 없지.”

친구는 총각에게 제 값을 주고 장닭을 샀습니다.

“좋은 장닭을 넘겨줘서 고맙네. 그럼 다음에 보세.”

“알겠네. 조심해서 돌아가게.”

총각은 친구에게 울지 않는 장닭을 팔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닷새 뒤 다시 장이 열렸습니다.

총각은 장을 보려고 장터로 갔습니다.

‘오늘은 무슨 물건을 살까? 오랜만에 생선이나 살까? 시원한 동태국이나 끓여 먹게 말이야.’

총각은 군침을 삼키며 어물전 쪽으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때, 성난 표정으로 총각에게 다가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총각에게 장닭을 샀던 친구였습니다.

“자네 나한테 그럴 수가 있는가? 친구를 속여? 나는 자네를 그렇게 보지 않았는데 아주 몹쓸 친구로군.”

친구는 몹시 화가 나서 얼굴이 붉으락푸르락했습니다.

하지만 총각은 모르는 척 시치미를 뚝습니

다.

“자네 지금 무슨 말을 하는가? 내가 자네한테 뭘 잘못했다는 거야?”

“이 친구가 탄전을 부리기는…. 꼭 내 입으로 이야기를 해야 알아듣겠는가?”

“글쎄, 나는 영문을 모르겠다니까. 무슨 사정인지 속 시원히 말해 보게.”

“좋아, 말해 주지. 자네 왜 나한테 울지 않는 장닭을 팔았는가? 맹꽁이 병어리 장닭을, 뭐 새벽녘만 되면 마을이 떠나가라 울어댄다고? 돈 몇 푼 때문에 친구를 이렇게 속여도 되는 거야?”

총각은 어처구니없다는 듯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 친구, 이제 와서 무슨 탄 소리야? 잘 우는 장닭을 병어리 장닭으로 몰아세워? 우리 집에서는 어찌나 잘 우는지 새벽녘에 온 동네 사람들을 다 깨웠는데.”

“또 그 소리인가? 자네 거짓말을 하려면 입술에 침이나 바르고 하게. 우리 집에서는 우렁차게 울기는커녕 ‘꼬꼬댁 꼬꼬’ 하는 소리 한번 내지 않았다고.”

친구의 항변에 총각은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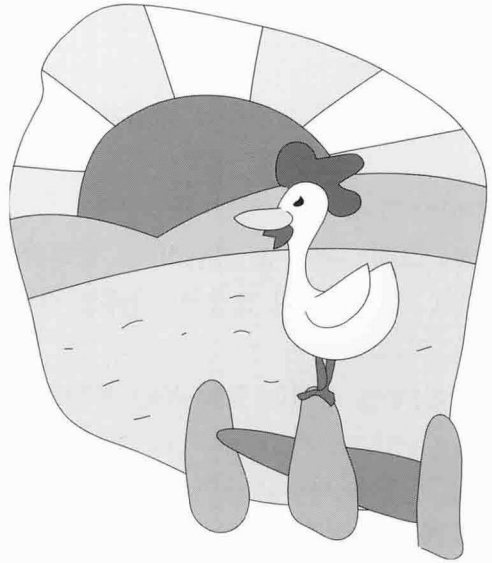
“어, 어? 그럴리가 없을 텐데. 참 이상한 일이네. 잘 우는 장닭이 왜 울지 않았지?”

“나는 원래 거짓말을 못하는 사람이야. 장닭은 잠꼬대조차 하지 않았단니까.”

“좋아, 자네 말을 인정하지. 그 대신 이제부터 내가 묻는 말에 대답해 주게.”

“알겠네.”

“장닭에게 집은 마련해 주었는가?”



“당연하지.”

“모이는 제때 주고?”

“닭을 기르는데 모이를 빠뜨릴 리가 있나. 아침저녁으로 줍쌀을 충분히 주었네.”

“암탉이랑 짝지어 주었는가?”

“우리 집에서 기르는 암탉이 대여섯 마리나 있다네.”

질문을 마친 총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알겠네. 잘 울던 장닭이 울지 않는 까닭을…”

“그, 그게 무슨 말인가?”

“자네도 한번 생각해 보게. 편안한 집에서 배불리 먹고, 암탉까지 여러 마리 두고 있는데, 뭐가 아쉬워서 목이 터져라 울겠는가? 자네가 장닭이라면 굳이 목이 아프게 울겠는가? 안 그래?”

총각의 말에 친구는 대꾸할 말을 잃고 말았습니다. 